

장애인과 동행하는 한걸음!

4월 20~21일 '장애인주일' ... 풍성한 행사 이어져
특순, 인식개선 캠페인, 교사 모집, 교사 교육 세미나

4월 20일(토)과 21일(일)은 '장애인주일'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행사가 열린다.

4월 21일 온누리교회 일요일예배에서 장애인들이 특순을 한다. 서빙고온누리교회 일요일예배 2부 온사랑합창단, 3부 사랑채버, 4부 omw(울동팀), 양재온누리교회 일요일예배 2부 양재 예수사랑부, 3부 양재 사랑부, 4부 온사랑합창단이 특순한다.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도 한다. '사랑', '진절', '배려', '관심'을 주제로 만든 포스터를 교회 곳곳에 전시한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도록 돕는 성도들의 실천 방법도 제시한다. 바른 명칭 사용하기(장애우, 일반인이 아닌 장애인, 비장애인), 돌발행동을 보이는 장애인을 이해하기, 엘리베이터에서 장애인이 먼저 내리

거나 타도록 배려하기, 휠체어 사용자가 우선 주차하도록 양보하기 등을 알려준다. 서빙고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에서는 뽕튀기 나눔과 인생네컷 사진찍기 이벤트도 한다.

사랑부 교사 모집도 한다. 서빙고, 양재, 강동, 부천, 인천온누리교회 사랑부를 섬길 교사를 모집한다. 각 캠퍼스 로비에 설치하는 홍보데스크나 QR 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사랑부 지체들을 섬기고 싶은 성도, 장애인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랑부 교사 교육 세미나도 열린다. 오는 4월 27일(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열린다. '발달장애 이해하기', '긍정적 행동지원' 등을 주제로 박인숙 장학관(인천교육청)이 강의한다.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굿월스토어 기증 캠페인'은 4월



지난달 부활절 행사에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 사랑부.

사랑부
교사모집QR

21일(일)과 28일(일) 서빙고, 양재, 부천, 수원, 대전, 남양주, 평택, 인천, 강동온누리교회에서 한다. 서빙고와 양재, 부천, 대전, 평택은 교회에 설치되는 굿월스토어 기증함에, 수원, 인천, 강동은 교회 내 지정 장소, 남양주는 목회지원실로 기증품을

가져오면 된다. 기증품이 많은 경우에는 굿월스토어에 연락하면 방문 수거도 한다.

굿월스토어에서는 성도들이 모아준 기증품을 매장에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한다. 굿월스토어 기증품은 재사용

이 가능한 의류, 신발, 가방, 잡화, 도서, 음반, 주방용품, 생활용품, 소형 가전제품, 유아용품 등이다. <관련기사 8-9면>

사랑부 문의: 02-3215-3263

굿월스토어 문의: 1533-0091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2030 자녀를 위한 맞춤형도집회 '인생네컷'

5월 13일 오후 6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2030 자녀를 위한 맞춤형도집회 '인생네컷'이 오는 5월 13일(월) 오후 6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예수님을 떠나 있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다시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장(場)이다. 과거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2030세대 자녀가 대상이다.

2030 자녀를 위한 맞춤형도집회 '인생네컷'에서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유튜브 박위, 가수 범키, 가수 f(x) 루나, 가스펠보컬 밴드 CRUX, DJ PLASTIC KID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부모와 자녀가 맛있는 식사를 함께하고, 신앙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만찬이 준비되어 있다. 애프터 프로그램으로 '인생네컷 데이트'도 한다. 테이블 리더(대학청년부 리더)와 팀원이 함께 인생네컷 사진을 찍고, 예배로 초대하는 이벤트다. 맞춤형도집회 '인생네컷'에 자녀를 초대하고 싶은 부모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나 구글폼(하단 QR 참고)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모집한다.

2030 자녀를 위한 맞춤형도집회 '인생네컷' 요청자들을 위한 기도모임도 열린다. 4월 22일(월)과 29일(월) 오후 7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22일에는 여성민 목사 '전도를 위한 오리엔테이션과 기도 그룹', 29일에는 김영애 권사가 '2030 자녀에게 부모님이 들려줄 이야기'를 주제로 강의한다. 요청자들은 기도모임에 꼭 참석해야 한다.

/ 홍하영 기자



5월 4~5일 '대중교통 이용 주일'

오는 5월 4일(토)과 5일(일)을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이다.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5월 4일 오전 5시부터 5월 5일 오후 10시까지 교회주차장 이용을 제한한다. 이날은 자가용은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와야 한다. 교회 주변 아파트나 상가,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날 교회주차장은 교회에서 발급하는 주차증을 부착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주차증은 7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3개월 이하 자녀 동반, 자녀 3명 이상, 첼로 연주자, 어린이 3명 이상 카풀 차량 등에 게만 발급한다.

5월 5일에는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이춘역, 국립중앙박물관, 거북선 나루터,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양재역 환승주차장을 오가는 셔틀을 운행한다.

문의: 02-3215-3434

/ 홍하영 기자

행복한 가정 레이스 '달려라풍당'

4월 27일~5월 26일 ... 4월 27일 스페셜데이 행사

CGN과 온누리교회가 함께 '행복한 가정 레이스, 달려라풍당' (이하 달려라풍당)을 시작한다. 4월 27일(토)부터 5월 26일(주일)까지 한 달 동안 이어진다.

올해로 4회째 진행되는 달려라풍당은 부모와 자녀,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걷고, 달리면서 세대 통합을 이루고,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만들기 위한 가정회복 캠페인이다. 참가신청은 5월 25일(토)까지 달려라풍당 홈페이지(runfondantmodoo.at)에서 하면 된다. 올해 달려라풍당 목표는 참가자 3천 명, 모금액 1억 원이다. 선착순 3천 명에게는 달려라풍당 공식 티셔츠를 선물한다.

참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걷기, 러닝, 라이딩, 등산, 캠핑, 게임 등 개인이나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활동과 후원 목표금액을 자유롭게 정한 다음 참가신청서에 기록한다. 후원 목표액은 km당 1백 원 이상이다.

둘째, 캠페인 기간에 활동 목표를 달성하고, 목표금액만큼 CGN을 후원한다. 달려라풍당 후원금 전액은 가정 및 다음세대를 위한 CGN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라이선싱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달려라풍당 시작을 알리는 '스페셜데이' 행사가 4월 27일(토)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가수 이무송, 하다쉬뮤직, 개그맨 김기리, 이정규, 개그우먼 김혜선, 뮤지컬 배우 선우 등이 개막행사에 출연할 예정이다. 개막행사 이후 곧바로 도보, 자전거, 러닝 등 각자의 방식으로 이촌동과 양재동 주변 코스를 걷거나 달리면 된다. 정해진 코스를 돌면서 거점마다 스탬프를 찍고, 목표 지점까지 완주하면 된다. 운동 전후 이벤트존에 마련된 인생세컷을 찍고 달려라풍당 사이트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 홍하영 기자

A Bold Witness for Christ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순교가 선교의 문을 열다

사도행전 7:54~8:3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 질문 앞에 응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과연 나의 생명과
바꿀 수 있을 만큼 귀중한 것인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자
신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우리 모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생명을 내걸
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시대와 상황에 있
었던 성도들 가운데 기쁘게 예수님을 믿는
삶을 선택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
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런 선택
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
음으로 얻는 영원한 생명이 자연적 생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을 확신했기
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시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어떤 고난과
핍박이 주어지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기에
순교의 도전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수하지 못하고, 때로 허영
과 위선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신앙을 신앙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인도해
주고, 온 세상을 향한 선교의 문을 열어 준
것은 순교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첫 번째
순교자가 스테반입니다. 스테반의 순교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의 시대가 시작되
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탄과 같았고, 동
시에 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문이
열렸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담대하게 진리를 증거하는 모습

오늘 본문에 나타난 스테반의 모습은 그
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무엇인지
를 보여줍니다. 순교란 위대한 어떤 사람들
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이 어떤 상황 에서 믿음의 선택을 했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교란 예수님의 모습
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스테반에게서 예수
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진리를 증거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모습
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진실 앞에 담대합니다. 진리를 전하는 데
어떤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
습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
니다. 스테반이 산헤드린 공회에 고소당한
이유는 예수님이 고소당한 이유와 동일합
니다.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신성모독
죄’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요한복음> 2
장 19절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삼일 만
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유
로 성전을 모독했다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또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등 하나
님과 자신을 동등한 존재로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정죄와 재판
을 받으셨습니다.

스테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심문을 받을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구약 역사를 관
통하는 설교를 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
윗으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줄기가 구약 역
사의 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
와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당신들이 성
령을 거역하고 그 예수님을 죽였다고 지적
했습니다. 스테반의 설교가 다윗에서 그친
것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분노하며 중지
시켰기 때문입니다. 계속 들었다면 이어졌
을 텐데 설교가 중지되었습니다. 스테반은
그들을 향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이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또
그들이 신성시하는 성전과 율법은 장차 오
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었기에 더는
그것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음을 설교했습
니다. <사도행전> 66절을 인용해 “하나님은 사
람이 만든 집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며 오신 예수님을 당신들
이 못 박아 죽였다”고 진실을 증거했습니
다. 그러나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진실을 왜
곡했고, 거짓 선동을 일으켜 스테반을 고소
했습니다. 스테반은 살기 위해 진실을 버리
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
다. 도리어 역사의 주인이시고, 중심이시며,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막힌 사람들
이여,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하
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
상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
들을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
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
해 준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51-53절).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영적 상태를 담대
하게 지적했고, 예수님을 죽인 죄를 드러냈
습니다. 진실을 증거하는 일에 담대했던 예
수님처럼, 모든 불법 재판과 심문 앞에서
담대하고 진실을 증거하셨던 예수님처럼,
스테반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
담대하게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모습

둘째, 분노하는 이들 앞에서 그들을 바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장면
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들었을 때 분노
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테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54절).

스테반은 자신을 향해 이를 갈고 분노하
는 이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이
려는 사람들은 사탄의 영으로 충만했고, 악
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스테반은

성령 충만해서 그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
이 열리고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
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광경
에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56절).

스테반은 자신의 용기로 이 상황을 이겨
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오른 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봄으
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스테반이 본 예
수님의 모습을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을 묘사할 때
본문에서는 ‘서 계셨다’고 하고, 또 다른 곳
에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계신다’고 표
현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초대교
회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해석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다고 말할 때는 심판자이심을 의미하고, 서
계신다고 말할 때는 우리를 변호하시고 중
보하시는 분임을 의미한다.”

스테반이 본 것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
는 예수님, 우리를 변호하시고, 중보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
입니다. 곧 스테반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
수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
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 너
머에 있는 기쁨을 보셨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
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
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
가를 참으셨습니다”(히 12:2).

예수님이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과 기
쁨,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바라보
셨기에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스테
반도 자신을 향하여 이를 갈고, 분노하며,
죽이려 하는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자신을 위해 중
보하고 변호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통해 하
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에 기쁨으로 순
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스테반
처럼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

셋째, 스테반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며 죽
이려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
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돌로 칠 때 스테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진실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닌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원수까지 용서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테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59~60절).

스테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드린 기도와 동일하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스테반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자신을 못 박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신 것처럼, 스테반도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스테반의 기도는 동일하게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스테반이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를 동일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기에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기도와 자신을 돌로 치는 그들 앞에서 스테반의 기도가 동일하게 터져 나온 것입니다.

용서의 기도가 일으킨 변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는 어떤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함께 못 박힌 한 편의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원래 양편에 있는 모든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함께 못 박힌 강도들이 모두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편 강도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조롱했던 이에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반복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소리가 바로 옆에 있던 강도들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한 강도가 ‘이런 죽음을 당하면서도 용서하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깨달아지고, 믿어졌기에 함께 죽어가는 죄수에게 “당신의 나

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함께 십자가 죽음을 경험한 한편의 강도를 구원했다면, 스테반의 기도는 어떤 열매를 낳았을까요? 곧바로 누군가 구원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힌트가 있습니다. 앞으로 누군가 변화될 거라는 힌트가 나옵니다.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58절).

이 사울은 바울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은 부르심을 받기 이전이었기 때문이고,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쓴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에 헬라식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바울이 스테반의 순교 장면에 나타납니다. 그는 구경꾼이 아니라 스테반 죽음의 협력자, 나아가 책임자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돌을 던진 자들이 바울 앞에 자신의 옷을 벗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행위들은 그가 어떤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는 바울에 의해 전도 받고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록할 때 틀림없이 바울의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 스테반의 죽음을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에 맞는 장면, 그 순간에 자신이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을 누가를 통해 표현하도록 한 것입니다. 당시 사울은 스테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기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상태였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그 출발을 스테반의 용서의 기도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게 된 것은 스테반의 용서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신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참여하는 이들을 용서하는 스테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기에 그 무리 책임자

로 있었던 사울을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역사하신 은혜를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통해 이 장면을 기억하고,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넣도록 한 것입니다.

스테반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사울의 기도로 누가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지금도 이 땅에 회심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들의 중보기도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회심과 구원의 역사로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로 강도가 변화된 것처럼, 스테반의 용서의 기도로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바울의 기도로 누가가 변화된 것처럼 계속 중보의 기도, 특히 용서의 기도는 복음의 역사가 능력 있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됩니다.

스테반의 순교, 핍박 신호탄이자 복음 퍼지는 영적 폭탄

스테반의 순교는 초대교회에 주어진 핍박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성도들은 흩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초대교회 공동체에 머무르고, 자발적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가둘 수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였고, 흩어짐은 곧 복음의 확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 흩어져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드레는 아시아 여러 국가를 다니며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매달린 십자가의 두 끝이 가로로 땅속에 파묻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네로 황제에 의하여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바로 매달릴 수 있는가?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요청했다

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 네로 황제에 의해 로마에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야고보, 빌립, 마테, 마가, 누가, 맛디아, 도마 등도 순교했습니다. 요한만 밧모섬에 갇힌 채 광산에서 일하면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여정에 포함되어 더 오래 살았을 뿐입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에서 일어난 대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며 잔인하게 박해했습니다. 그 이후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A.D. 107년 순교를 당했는데, 그는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일곱 개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유명한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들>입니다. 이 편지를 보면 그분은 살고자 애쓰지 않고 도리어 순교하기를 사모했습니다. 자신을 구해달라는 기도의 부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용기 있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부탁이었습니다. 그 편지 일부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단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 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나는 고난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것이며, 언젠가 자유스럽게 그와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떡으로 바쳐질 수 있도록 짐승들의 이빨에 찢겨져야 할 하나님의 밀알이라오.”

거룩한 확신과 부활에 대한 소망과 담대함만 있을 뿐입니다. 스테반의 순교는 핍박의 신호탄이었지만, 동시에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는 영적 폭탄이 되었습니다. 스테반은 우리가 도저히 본받을 수 없는 경지에 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동일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일꾼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진실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닌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핍박한 원수까지 용서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테반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스테반처럼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 시간

시간을 구속하라!(Redeeming the time)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의 모든 관점과 삶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는 것이다. 주일 예배 때 올려드리는 ‘하늘 보좌’ 찬양의 가사처럼,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 임재 앞에 엮여 있는 경배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먼저 사랑하시고(요일 4:19),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된다.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기 위해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매 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성경의 첫 단어 ‘태초’는 시작이라는 시간의 개념을 포함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통로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시간을 창조하셨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시간’에 대한 바른 성경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며,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시간을 동시에 아우르신다. 하나님은 어제, 오늘, 내일과 같은 시간적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영원히 유효하며, 은혜와 사랑도 영원불변하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의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 차원에서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벧후 3:8)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간 개념이 성경 말씀의 시제와 문장의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성경에서는 비교적 유연한 시제를 사용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만이 과거와 눈앞의 현재, 먼 미래를 특정한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다. 우리의 시간 인식은 과거의 기억을 불러올 수 있고, 미래의 비전을 현재 살아있는 요소로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의식은 현재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시간이란 어떤 변화하는 사건이나 현상을

이다. ‘세월을 아끼다’의 원어적 의미는 ‘시간을 구속하는 것(redeeming the time)’이다. 오스 기니스는 그의 저서 <오늘을 사는 이유>에서 ‘시간을 구속하는 것’의 성경적 개념을 설명했다. 그것은 어떤 한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강력한 진리의 매트릭스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복음을 일상의 삶으로 살아내는 결음과 시대를 이해(understanding the times)하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것(대상 12:32)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걷기’, ‘시대의 징표를 읽기’, ‘자신의 세대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각 사람을 현재(now), 여기(there)에 두셨다. 우리의 시간은 하

나님의 손에 있다(시 31:15). 비록 시대가 악랄지라도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사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다.



강애리 목사
(온누리세계관학교,
바른교육진흥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다.”

다. 과거, 현재, 미래 시점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문장에서 혼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과거 사건을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묘사하거나 미래 사건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서술하기도 한다. 성경적 시간관에서 끝은 모든 것의 종결이라는 의미와 최종적 목표의 완성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십자가의 끝은 부활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최종적 완성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소망을 주셨다.

기술하는 데 사용하는 물리량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 안에 두셔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하셨다. 현재의 순간은 영적 성장과 변화를 이루는 기회이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중한 시간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시간이 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다.

이 시간을 어떻게 선용할 수 있을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이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

특별기고

사랑은 진리를 이야기한다!

아마도 ‘탈성전환’을 경험한 사람들보다 사랑이 단순히 ‘관용’이라는 환원주의적 개념에 도전하는데 최적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최근 ‘포커스 온 더 패밀리’와 ‘콜슨 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한 ‘라이트하우스 보이즈’ 행사에서 로라 페리 스몰츠가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인이 상대방이 선호하는 말을 사용해야 하고, 불쾌감을 주지 않을 말과 행동만을 해야 하며, 겉으로만 신경을 써야 한다”는 생각에 관해 이야기했다. 사랑을 불쾌감을 주지 않는 행동과 말로만 축소하려는 유혹은 모든 거짓말과 마찬가지로 반쪽짜리 진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교만하거나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는 것’으로 묘사한다. 또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권면한다.

하지만 사랑은 친절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 이상이다. 사랑은 진리를 말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이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고집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바울은 분명하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한다. 사실 진리와 도덕의 기반을 이 방식성에 대입해 보면, 오늘날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력(많은 사람이 지적했듯이 오히려 관용적이지 않은 압력)은 세상에 순응하라는 압력이다. 바울도 이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로라 페리 스몰츠는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말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현실적인 대가를 잘 알고 있다. 실제로 그녀는 ‘라이트하우스 보이즈’ 행사에서 의료전문가와 상담사, 친구들이 진리를 말하는 대신 어떻게

숨쉬신 적이 있다. 교회에는 세상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우상 숭배, 즉 세상이 볼 때 가장 사랑스러운 교회, 내가 아는 한 가장 사랑스러운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우상 숭배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항상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싶지만, 원수의 가장 큰 전술 중 하나는 마치 우리가 서로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즉, 혐오스

에 다시 돌아와서 내가 했던 말에 감사를 표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로라의 말이 맞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성 어거스틴은 올바른 질서를 따라 하는 사랑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웃을 먼저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을 성공적으로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할 때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이유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제멋대로 하는 망상, 거짓, 반향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데 너무 신경을 써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안 된다. 진정한 사랑은 결국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와 반역, 깨어짐까지 받아 주신 그리스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분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지금 세상에 가장 필요한 사랑의 본보기이자 원천이다.

/ 존 스톤스트리트(척 콜슨 기독교세계관센터 대표), 자렛 헤이든(콜슨 센터 작가)

원문:breakpoint(20240403)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게 거짓을 말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진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세상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너무 쉽게 하곤 한다. 하지만 정말 정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쁜 말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번은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말

러운 기독교인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미움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사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너희에 대해 좋게 말하면 화가 있을 거라고 하셨다. 그들이 내 메시지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당신의 메시지도 거부할 거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그분을 떠났다고 말씀하셨지만, 그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시 돌아왔는지는 알 수 없다. 씨앗이 자라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나도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나중

엄마 아빠, 성(性)이 궁금해요!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성교육



이진아 전도사
(남가주 다음세대
지킴이 대표)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들은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는다. 사춘기에 접어드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성경적 성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부모와의 대화가 중요하다.

자녀가 사춘기에 들어선 것을 보면서 성교육을 지금이라도 해야겠다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동안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없는 가정인데, 갑자기 성경적 성교육 책을 같이 읽거나 성에 관한 대화를 시도하면 더 큰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성교육에 앞서 먼저 자녀와 대화의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사춘기에 들어서면 자녀들은 부모와 성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린다. 성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관한 대화가 많이 줄어든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가 아주 중요하다. 본격적인 사춘기에 들어가기 전에 성을 가르치고 이해시켜야 한다. 가능한 12살 전에 성교육을 마칠 것을 권한다.

둘째, 복음으로 거듭나도록 도와야 한다. 사춘기에 접어드는 시기에는 본인의 생각과 사고로 결정하려는 시도를 많이 한다. 부모의 말보다 본인이 직접 사고하고 이해해야 받아들이는 시기다. 그래서 자녀가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적 성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 자녀가 먼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성경적 성교육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수 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볼 때 정체성을 올바르게 알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 아들과 딸로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셋째, 머리는 차갑고, 마음은 뜨거운 자녀로 키워야 한다. 부모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임을 가르쳐야 한다. 어릴 때부터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잘 가르쳐야 자녀들이 넓고 쉬운 길이 아니라 좁

고 옳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면 혼자 방에서 컴퓨터를 열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고, 그분의 눈을 의식하게 된다. 자녀들이 축복 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꼭 경외를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만 해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밖에 안 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하나님이 왜 순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이해하게 되고,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고 격려해야 한다. 머리에는 선과 악을 날카롭게 구별하는 차가운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한다.

넷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은 올바른 미의 기준을 알려주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 결합했을 때 이미 그 작은 세포에 어떤 색의 눈을 가질지, 키는 얼마일지 등 가장 자기답게 만들어주는 DNA 코드가 새겨져 있다. 지금의 모습과 성격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계획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면 좋겠다. 요즘 아이들은 아주 건강해 보이고 예뻐도 본인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무리해서 살을 빼려고 한다. 겉모양의 아름다움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이다.

다섯째, 사춘기 신체 발달에 대해 미리 가르쳐야 한다. 사춘기 시기는 2차 성징이 일어나므로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다. 남자들은 약 12~15세가 되면 정자를 만들기 때문에 14세 전으로 몽정을 하고, 여자들은 13~14세 전후로 생리를 시작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몽정에 관해 미리 이야기해주면 좋다. 몽정은 몸이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아버지가 되기 위한 몸의 준비 과정의 한 부분이다. 몽정하면 속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라고 미리 이야기 해주면 된다. 몽정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몸으로 자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

하신 축복이다.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 믿음의 남자로 준비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알려주어야 한다.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월경에 대해 미리 알려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월경 때 나오는 피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 피는 태아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했던 조직이었기에 내 몸에서 가장 순수하고 깨끗하다. 월경할 때 불쾌한 냄새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줘야 한다. 냄새의 이유는 자궁 안에서 일정 시간 고여 있다가 분비물과 섞여 나오기 때문이다. 공기 접촉으로 인해 산화되면서 냄새가 날 수 있다. 생리대 속에 있는 화학물질 때문에 냄새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청결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 줘야 한다.

미국에는 초경 파티가 있다. 이처럼 여자아들에게 초경을 좋은 추억으로 만들어주면 좋다. 우리 가족은 딸이 처음 월경을 시작했을 때 함께 외식을 했다. 그때 규칙이 한 가지 있었는데 음식을 꼭 빨간 것을 먹는 것이었다. 미디움 레어 스테이크, 빨간 토마토소스 파스타, 레드캐비지 샐러드, 크랜베리 주스, 레드벨벳 케이크를 먹으면서 딸에게 월경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가르쳐 주었다.

여섯째, 포르노는 간접적 간음임을 경고해야 한다. 청소년 시기 전후로 뇌는 끊임없이 발달하고, 주위 상황과 환경에 의해 변화한다. 호기심 많은 이 시기에 어리석은 실수를 충동적으로 하고, 후회하는 아이들이 많다. 포르노는 코카인이나 헤로인보다 중독성이 훨씬 강하다. 이 시기에 포르노에 한 번만 노출되어도 평생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중독성이 강할 수 있다. 포르노는 성충동을 없애지 못하는 게 아니라 더 충동에 목마르게 만든다. 포르노는 간접적 간음이다. 포르노를 보는 것만으로도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의 생각과 마음이 포르노에 공격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막고 기도해야 한다.

* 이 글은 기독교 OTT '풍당' 콘텐츠 '우리 아이를 위한 성교육 4편 초등 고학년 자녀를 위한 성교육'을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강의는 기독교 OTT '풍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그림 명난희

68. 지혜를 구한 솔로몬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4월 19~20일 본문 왕 8:18~20, 왕 8:28~30



1. 나는 누구일까요? 문제를 읽고 내가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 나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다윗왕은 성전을 짓고 싶어했지만, 하나님은 아들인 저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 ① 요셉 ② 솔로몬 ③ 바울 ④ 요나단

2. 1번 문제의 주인공은 성전을 다 짓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 왔어요.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 들어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 ① 금 ② 십자가 ③ 두 돌판 ④ 송아지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차세대 독후감

“하나님을 잘 믿자!”

여태까지 읽은 책들은 모두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멋진 결심을 했다.

“하나님을 잘 믿자!”

<슈퍼 바이블>을 읽으면서도 같은 생각을 했다. <슈퍼 바이블>을 읽으면서 알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했다. 나도 예수님을 잘 믿을 것이다. 나는 믿음을 갖고, 악마

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착한 어린이가 될 거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QT도 열심히 하는 어린이 황한나가 될 거다.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성령님에 대해 잘 알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항상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엄마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알려주셨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어린이가 되어야겠다.

“하나님! 한나를 예쁘게 창조해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황한나 어린이
(서빙고 유년3부)

사회선교본부 창립 10주년을 맞으며

교회가 환경 문제를 다루는 이유

창조세계 돌봄, 그것은 하나님의 뜻!



유진아 목사
(S브릿지공동체,
사회선교본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트 한 데

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롬 8:19~22).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인간의 무지하고, 무차별적인 착취와 훼손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창조세계 돌봄에 대한 지침을 주셨는데, 안타깝게 우리가 이 말씀을 흘려들었다. 이제는 우리가 초래한 환경 파괴와 생태계 위기로 인해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받게 되었다. 환경 문제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요즘도 교회가 왜 환경 문제를 다루는지 질문하는 성도님들을 종종 만난다. 그분들은 환경 문제가 중요한 사회 문제임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믿음 그리고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하신 아름다운 창조세계를 보전하고, 지키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셨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충

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간과해 왔다. 이제부터라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의 탐욕을 부추기는 인간중심적 성서 해석과 사고, 그에 따른 그릇된 행위를 인지하고 깊이 반성해야 한다.

창조세계 돌봄은 ‘신앙의 과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세계 전체를 귀하게 여기고(창 1:1),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과 환경에 대한 선한 청지기적 사명을 부여하셨음을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이다(창 2:15). 하나님의

분별한 개발, 그로 인해 자연환경을 마구 착취하고, 훼손해 자연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일을 멈춰야 한다.

창조세계 돌봄을 신앙의 과제로 받아들이는 인식 전환과 생활의 변화가 쉽지만은 않다. 한국 교회 역사를 통틀어 ‘창조세계 돌봄’이라는 주제는 대체로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 성경에 대한 교회의 일반적인 이해는 대체로 인간중심적이며, 창조세계 돌봄과 같은 과제는 부수적인 문제로 간주되어 왔다. 감사하게도 최근 들어서는 한국 교회에서도 창조세계 돌봄을 신앙의 문제로 바르게 이해하려는 노력과 창조세계 돌봄 역시 교회의 선교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창조세계 돌봄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우리는 창조세계 돌봄의 의미를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맥락 안에서 설명하고,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돌보는 문제가 왜, 어떻게, 복음의 문제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교회는 창조세계 돌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성도들에게 알려야 한다.

창조세계 돌봄에 대한 ‘교회의 자세’

창조세계 돌봄을 성경적 명령으로 확립하는 중요한 과제에서 ‘기후 위기’라는 일반적인 문제에 의존하지 않는 일도 중요하다. 교회가 창조질서 회복을 이야기할 때, 오늘날 직면하고 있고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전례 없는 생태 위기에 주목하고 싶은 유혹이 당연히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창조세계 돌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주장을 오히려 손상할 수 있다. 기후 위기에 대한 교회의 강조는 의도와 달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예: 인류의 존재에 대한 위협)에 단순히 반응하는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세계 돌봄이라는 과제는 인류의 안위와 안녕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실천해야 하는 과제이다. 복음 문제로서의 창조세계 돌봄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 이전부터 존재해 온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창조세계 돌봄이라는 과제는
기후 위기 이전부터 존재해 온,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실천해야 하는 과제이다.”

창조세계를 책임 있게 돌봄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동참하는 일이다.

태초에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생명이 평화롭고 풍족하게 공존하도록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멸망의 길에 들어섰다(창 2:16~17). 이제 우리는 끝없는 탐욕과 탐심으로부터 돌아서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하신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 나무 열매를 선택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탐욕과 편리함만을 부추기는 과잉 소비와 무

려나 아직도 한국 교회의 지배적인 시각은 여전히 창조세계 돌봄을 신앙과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는 편이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신학자의 수고로 인해 창조세계 돌봄에 대한 탄탄한 성경적 근거가 제시된 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많은 개교회가 여전히 교회에서 창조세계 돌봄이라는 주제를 다루는데 소극적이다. 창조세계 돌봄이 복음의 문제이며, 하나님의 선교 범위에 속함으로 교회가 이를 선교로 받아들이야 한다는 개념이 아직은 생소하다.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일 또한 쉽지 않다. 그러므로 교회, 즉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는 예

사역칼럼

다시 불편함을 감수(Uncomfortable!)



김우용 총무
(사회선교본부
생명과환경팀)

2014년 초 사회선교본부 창설과 함께 시작된 ‘생명과환경팀’은 2017년부터 창조세계 돌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역을 하고 있다. 생명과환경팀은 사회선교본부의 사역 전략인 ‘Loving U’를 따라 편안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생활 방식과 습관에서 벗어날 것을 제안하는 ‘Uncomfortable’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역을 시작했다. 대중교통 이용의 날, 제로 캠페인(쓰레기, 플라스틱, 잔반), 텀블러 사용 장려 캠페인(Why 텀블러), 사순절 창조질

서 회복캠페인 등을 하고 있다. 2017년부터 2년여 동안 진행한 환경보호 캠페인에 온누리 교회 많은 성도님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응원을 보내주셨다.

그런데 2020년 초, 국내 확산이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이 일상의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들의 사회활동과 대면 소통이 제한되었다. 개인의 생활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생활 폐기물 발생 패턴도 크게 달라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으로 간편식 및 배달 음식,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소비가 확산했고, 일회용 포장재 사용이 많이 증가했다. 특히 분리배출 되는 플라스틱 중에서 배달 음식 포장재를 포함한 ‘기타 폐합성수지류’ 항목이 확연하게 증가했다. 2019년(715.5톤/일) 대비 2020년(1,143.9톤/일) 59.9%

나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보건과 위생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일회용품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보면서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무기력감을 느꼈다. 엄청나게 발생하는 쓰레기를 바라보며 나의 편함과 욕심, 탐욕이 불러온 재앙이라는 생각에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여섯 번에 걸쳐 “좋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당신이 창조한 세계를 돌볼 명령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피조세계를 관리하지 못하고, 파괴하고, 오염을 방조하고, 조장하고, 환경 파괴를 가속해서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죄로 신음하고 있다.

제3차 로잔대회의 케이프타운 서약 일곱 번째 신앙고백이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

한다”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인간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창조된 세계를 돌보는 것이다. 창조세계 돌봄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사랑의 반응이다. 우리가 청지기적 사명으로 자연과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중국의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면서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청명한 하늘을 경험했다. 사회선교본부 생명과환경팀이 코로나19 이후 ‘Uncomfortable’ (불편함을 감수하는) 캠페인을 다시 시작한다. 무력감과 낙심함을 내려놓고 다시 도전한다. 창조세계 돌봄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청명한 하늘처럼 시원해질 것을 기대한다.

멘토가 멘티에게

‘하나님의 답’을 발견하자!

“내 꿈과 하나님의 꿈이 다를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을 분별해서 찾을 수 있을까요?”

책 <목적이 이끄는 삶>을 최근 다시 읽어봤다. 청년 시절 이 책 제목이 참 매력적이었다. 늘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만 같았던 청년 시절이었기에 ‘책에 어떤 답이 있지 않을까?’ 희망을 품었던 기억이 난다. 그럼에도 당시에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는데, 이번에 다시 마주했을 때는 감탄하며 읽어 내려갔다. 그러면서 깨달았다. 당시에는 ‘내가 찾는 답’이라는 어떤 프레임이 내 눈을 가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그 시절 내가 간절하게 찾고 있던 것은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답이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답답한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 무려 다섯 명의 남편을 거쳤던 것처럼, 나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직장 생활이 거의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였는데도, 남아 있는 에너지를 긁어모아 그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했다. 그 노력마저 포기하면 인생이 그대로 가라앉아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그러나 ‘내가 찾는 답’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그렇게도 버둥거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답’은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은 당신을 나의 프레임에 맞추는 분이 아니셨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프레임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때까지 제법 많은 세월이 흘러야 했다. 나의 프레임을 만족시켜 주는 신은 사실 따로 있었다.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른다. ‘내가 찾는 답’이라는 프레임에는 두 가지

“나의 프레임이 발가벗겨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답’이 들리기 시작한다.”

전제가 숨어 있다는 것도 나중에 깨닫게 됐다. 우선은 그 답이 내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선택에는 정답과 오답이 있다는 생각이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산입니까? 아니면 저 산입니까?”라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방향에 대해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라고 질문하곤 한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녀와 동일한 프레임을 가지고 제자들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이냐고 물었을 때도 예수님은 “그것은 아버지의 소관이니 너희는 알 것 없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그렇게 구체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답을 구하는 우리의 프레임에 매이지 않는 분 같다. 우리의 프레임대로 답을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있다. 사실 내 자신의 프레임에 정작하게 살피었을 때 그 답이 합리적이고 내가 납득할 만한 경우에만 따르겠다는 생각이 은밀히 숨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내 인생에서 무엇이 납득할만한 것인지는 내 자신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기를 원하는 마음,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자 하는 근원적인 죄성의 프레임이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역시도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자신을 망하게 했음을 깨

달았다. 그래서 탕자는 이제는 종이라도 되겠다며 아버지께로 돌아왔고, 하나님은 그런 그를 무척이나 반가워하셨고 기뻐하셨다. 그런 탕자의 모습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던 나의 숨겨진 프레임이 드러나고 발가벗겨졌을 때, 비로소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답’이 들리기 시작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네 갈 길을 알려주실 것이다” (잠 3:6).

영화 ‘바베트의 만찬’에서 로렌스 장군이 이렇게 고백한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연약한 인간은 자신이 인생에서 모든 결정을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으로 인해 두려워 떨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고 우리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자비가 무한하다는 것을 ...”



허식 멘토
(CHPLUS청년부)

생각과 인식의 차이

설거지는 매우 일상적인 일이다. 어느 가정에서든 식식하고 남은 조리도구와 그릇을 씻어내는 반복적인 작업이 이뤄진다. 협업이 잘 이뤄지는 가정은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업이 잘 이뤄질 뿐만 아니라 설거지도 적절하게 업무 분담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소소한 가사를 분담해서 실행하는 중에 부부가 갈등을 겪기도 한다. 특히 갓 결혼한 부부라면 결혼 연수가 많은 부부보다 소소한 가정 업무에서 충돌과 당혹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싱크대 안의 그릇만 닦아내는 것을 설거지의 의미로 이해하는 남편이 있을 수 있다. 남편이 설거지를 싱크대 안에 있는 그릇을 닦는 것으로 인식한다면, 싱크대 안에만 집중해서 설거지할 것이다. 그런데 아내가 이해하는 설거지의 의미와 범위가 싱크대를 넘어서 주방 전체를 정리하고 깨끗이 하는 것이라면, 소소한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설거지의 범위가 싱크대에 머물러 있는 남편이 최선을 다해도 아내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내가 기대하는 설거지의 이해와 범위가 싱크대를 넘어서 주방의 구석구석인 경우, 남편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그릇만 씻어서 당황하고, 불만이 생길 수 있다.

서로 소통하는 부부라면 설거지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화할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기대하는 바를 이야기했음에도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배우자를 보면 당황스러움을 넘

어 짜증과 화를 경험하기도 할 것이다. “몇 번 이야기했는데 왜 기대에 미치지 못해요?”, “당신이 온전하게 일하지 못해서 또 내가 해야 하잖아요!” 등 통명스러운 말을 쏟아낼 수도 있다. 단순한 충돌에서 멈추지 않고, 일상에서 서로 다른 기대와 실망이 심각한 부부 갈등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되기도 한다.

일상의 소소한 갈등 가운데 있는 부부는 유치하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여기고 싸울 수 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데도 말이다. 부부사이에서 일어나는 충돌의 원인은 단지 견해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인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생각의 차이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면 매우 곤란하다. 틀린 게 아니라 경험하고 이해하는 게 다르기에 발생하는 일들이다. 따라서 부부는 더욱 마음을 열고, 대화해야 한다. 사소한 것이지만 사소하지 않은 것처럼 대화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과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충돌은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다. “아이를 좀 봐주세요”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아이를 바라보기만 하는 배우자가 있다. 육아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아이를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없어서 바라만 보는 경우도 있다. 배우자가 아이를 본다는 의미를 ‘아이가 안전한지 눈여겨보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면, 아이가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냥 바라만 보는 행동을 할 수 있다. 반면 엄밀들

에게 아이를 본다는 것은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이를 보달라고 부탁할 때는 아이의 안전과 신체적, 정서적 반응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며, 돌봄을 시도할 것을 기대한다. 여기서도 옳고 그름으로 ‘아이를 본다’는 의미를 논쟁하면 갈등이 발생한다. 인식과 생각의 폭과 범위가 다르다는 의미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 따라서 부부는 차분하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해야 한다. 서로 가진 다른 생각을 조율하고, 설명하고, 이해하고, 용납해야 한다. 서로 다른 이해와 생각의 폭이 생기면 먼저 자신의 관점만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

온유함으로 대화하기 위해서는 공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넌 이것도 못해?”라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 입장으로 내려놓아야 한다.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견해도 적극적으로 말하고, 배우자의 말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 간혹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대화를 회피하는 부부가 있다. 자존심 상해하거나 “어휴, 내가 하고 말지”라면서 배우자에게 말하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오래 함께 살아가야 하는 부부는 사소한 거라도 입 밖으로 끄집어내 대화할 필요가 있다. 사소한 것, 생활의 작은 습관 차이, 인식의 차이를 온유함으로 꺼내서 대화 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온유함으로 대화한다는 것은 배우

자에게 비아냥거리거나 쏘아붙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도대체 아이를 본다는 게 정말 눈으로만 본다는 의미인 양 가만히 있는 것이 말이 돼?”라는 식으로 쏘아붙이거나 비아냥거리면, 부부의 마음이 더 멀어질 것이고,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이다. 소소한 갈등이 훨씬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 틀린 것이 아닌 다름이 일상에서 발견된다면, 자신의 관점을 잠시 내려놓고, 공손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때론 옳을 수도 있고 때론 틀릴 수도 있는 게 사람이다. 불완전 두 사람이 결혼했기에 자신이 생각하는 확신은 잠시 내려놓고, 배우자의 생각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서로 대화하다 보면 어느새 서로가 어느 정도 공감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접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담쌓지 않으며, 대화할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 “어휴 내가 하고 마는 것이 속편하지!”라는 식으로 마음을 닫아버리면 배우자는 동역자가 아니라 짐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 부부는 이해와 생각의 정도, 범위를 맞춰가야 한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사랑해서 결혼한 당신에게> 저자)

르포 굿윌스토어 도봉점을 가다

“장애인에게는 일자리가 행복이자 기쁨입니다”



장애인 직원이 굿윌스토어 매장에서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임승진 형제(영업팀)는 굿윌스토어 영업팀 선임이자 청각장애인 직원들의 수어 통역을 담당하고 있다. 임승진 형제가 처음부터 수어를 할 줄 알았던 것은 아니다. 굿윌스토어에서 일하면서 배웠다. 수어를 배우는 게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지금은 명실상부한 굿윌스토어 도봉점의 대표 수어 통역사다.

“전에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했는데 사람들과 관계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장애인이란 이유로 사람들이 저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목사님 추천으로 굿윌스토어에 왔는데 이곳에서 일하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어려웠는데,

직장 동료들과 관계가 좋아서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이 직장을 구하는 일이 참 어려운데 굿윌스토어에는 장애인의 취업 문이 활짝 열려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영업팀에서 저의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고, 수어로 청각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소통하는 것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최재훈 형제(물류팀)는 대학 시절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하다가 추락사고를 당했다. 몇 년 동안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우울증이 심하게 왔다. 결국, 정신장애 판정을 받았다. 그는 날마다 “직장을 다니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모른다”고 고백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갈 곳이 있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일상을 보내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굿윌스토어에 오기 전에 다른 일을 많이 했는데, 나쁜 상사를 만나거나 불가피하게 퇴직했습니다. 제가 정말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굿윌스토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굿윌스토어에서는 장애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얼마 전에 자립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립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웃음) 함께 일하는 장애인 직원들에게도 얼마든지 자립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하지수 자매(콜센터)는 4년 전 대인기피증이 심했는데 극복하고, 취업에 도전하기로 했다. 가족과 굿윌스토어에 물건을 사러 갈 때마다 ‘여기서 일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바람대로 이루어졌다.

“엄마랑 언니랑 물건사러 왔던 굿윌스토어에 취업했을 때 정말 기뻐했습니다. 굿윌스토어는 직원들을 많이 배려해 주고,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 좋아서 일하는 게 즐겁습니다. 게다가 다양하고 좋은 물건을 값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콜센터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일이 힘들 때도 있지만, 저만의 노하우를 살려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나 웃으면서 말해서 듣는 고객들의 기분이 덩달아 좋아진다는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홍서윤 자매(사무보조)는 굿윌스토어 7년 차 직원이다. 전에는 인쇄소에서 일했는데 회사가 폐업하면서 일자리를 잃었다. 다시 일자리를 찾던 중에 굿윌스토어 사무보조 채용 공고를 보고 곧바로 지원했다.

“장애인은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굿윌스토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모두 좋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 편안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굿윌스토어가 정말 좋습니다.”

장은혜 직업재활과장(굿윌스토어 도봉점)이 왜 굿윌스토어 기증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소외된 장애인들에게는 일자리 그 자체가 행복이자 기쁨이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이 직원으로서 인정받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게 굿윌스토어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재사용이 가능한 물건을 적극적으로 기증하면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장애인들이 자립하도록 돕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물건 하나라도 기증하고, 매장을 방문해서 구매해주시면 그것이 곧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것입니다. 굿윌스토어 기증 캠페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김다예 기자 daa2@onnuri.org

초대 사랑부 교사의 고백

그렇게 ‘사랑부’가 시작되었다!

1987년 특수교육을 전공한 나는 자연스레 장애 아동과 구원, 교회와 예배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당시 한국 교회에 장애아동부서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학교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WHO(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 인구의 10%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고 발표했다. 당시 나는 ‘온누리교회에도 장애 자녀를 둔 가족이 많을 텐데 그들이 왜 교회에 없을 까?’ 하고 자문했다. 당시 가정에 장애 자녀가 있으면 가능한 숨기고 싶고, 숨겨야 하는 사회적 편견이 있었다. 몹시 마음이 아팠다.

그 무렵, 온누리교회에서 열린 데니스레인 목사의 <창세기> 강해설교 집회에서 ‘장애 아동을 위한 예배가 교회에 세워져야 한다’는 답을 얻었다. 데니스레인 목사가 설교 중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게 창조 목적임을 깨달았다.

당시 유치부 교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명의 친구가 유치부 예배에 참석했다. 그 친구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예배 시간마다 돌보기 시작했다. 이 일이 교회에 알려지면서 장애 자녀들이 한 명, 두 명 예배에 참석했다. 그렇게 ‘사랑부’가 시작되었다. 한동안 사랑부 친구들과 교사들이 짝이 되어서 유치부에서 중등부까지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공부를 했다. 하지만 사랑부 친구들이 가진 여러 행동 특성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 않았다. ‘학교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해서 학급을 달리하는데, 교회에서도 과연 나눠 할까?’ 갈등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랑부 친구들이 다른 부서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다른 부서 친구들이 정기적으로 사랑부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좋은 방법 같다. 사랑부 친구들이 다른 부서에 가면 다수 속에 소수로 존재하고, 단순히 공간적으로 함께하는 것뿐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부서 친구들이 정기

적으로 사랑부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 사랑부 친구들은 평소대로 예배를 드리고, 주인의 마음으로 다른 부서 친구들을 맞이할 수 있다. 다른 부서 친구들은 사랑부 예배를 드리면서 장애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사랑부 예배를 생각하며 때때로 두 가지 오류에 빠지기 쉽다. 첫째, 장애인은 무조건 구원을 받을 천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과 물질, 건강과 힘이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하는 것처럼, 장애가 예수님을 대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하는 데, 장애인을 열외로 둘 수 없다. 둘째, ‘장애인이 어떻게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다. 구원의 첫걸음인 죄를 깨닫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다. 사랑부 예배에서 나의 죄인 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눈물로 고백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그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고 죄를 고백할 수 있구나”가 아니라 “그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구나”라고 여기는 게 옳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장애인이 열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1988년 한 명으로 시작한 온누리교회 사랑부가 지금은 인원이 많이 늘었다는 게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 모든 성도가 서로를 하나님의 결작품으로 아름답게 바라보기를 바란다.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남을 대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온누리에 흘러넘치기를 기대한다. 장애인들이 어디에서든지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

나영지 성도
(초대 사랑부 교사)

장애인주일을 보내며

가장 낮고 연약한 자들의 천국

장애인에배공동체 ‘사랑부’의 태동과 역할



김준홍 장로
(장애인사역본부 담당)

온누리교회가 세워진 지 2년이 지난 1988년 봄이었다. 당시 유치부 교사로 섬기던 나영지 교사의 눈에 한 명의 남자아이가 보였다.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말도 없이 혼자 노는 아이를

보고 발달장애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 아이를 위한 별도의 공과를 만들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게 온누리교회 장애인에배공동체 ‘사랑부’의 첫 발걸음이었다. 함께 섬기고자 하는 교사들이 모이고, 발달장애인 아이들을 위한 예배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집안에만 있던 장애인 자녀들을 이끌고 교회에 오는 부모들이 하나둘씩 모였다. 1989년 봄에는 교역자가 세워지면서 정식으로 장애인 주일학교가 시작됐다.

장애인 주일학교는 교회 성장과 함께 점차 규모가 커졌다. 36년이 지난 지금은 서빙고(3개), 양재(2개), 강동, 부천, 인천온누리교회에 총 발달장애인 300명과 교사 200명이 모이고 있다. 성장과 부흥을 이루었다. 또한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된 사랑챔버(1999년 창단)와 온사랑합창단(2011년 창단)이 음악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과 공연 등 활발한 문화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한 사람의 관심과 헌신 그리고 기도

36년 전에는 발달장애인을 ‘정신지체’ 또는 ‘지적장애’로 불렀다. 그만큼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심했음을 뿐 아니라 부모들이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양육해야 할지도 잘 몰랐다. 더구나 사랑하는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들이 한동안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심지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자책하며, 우울증을 겪는 가정도 있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해 요즘같이 사회적 돌봄 제도나 복지시스템이 거의 없던 시절이었다.

하나님은 나영지 교사 한 사람을 부르셔서 어느 장애아이를 관심 있게 보게 하셨고, 그 아이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이와 가정의 회복을 위한 기도와 헌신을 하게 하셨다. 이 모든 과정이 교회사역의 기본원리이고, 이상적인 선교 방법론임을 깨달았다. 이렇듯 사랑부는 장애로 인해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연약한 영혼들을 섬기고, 본래 하나님의 형상



“장애인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다.”

으로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아름다운 예배공동체를 이루어 왔다. 아직 사랑부가 없는 수원, 대전, 남양주, 평택, 양지, 영종온누리교회에도 발달장애인 한 아이를 찾는 하나님의 손길을 고대하며 사랑부 신설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

성경에 나타난 장애인의 의미와 그 역할

성경에 나타난 장애인의 의미와 역할이 있다. 첫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창 1:27).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창 1:31a).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지적이고, 육체적인 기준이 아니다. 상대적이고, 평가되거나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와 존엄성을 의미한다.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는 의미는 어떤 기준과 조건이 충족되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무조건 기뻐하신다는 의미다. 장애인이 부족하고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존재다.

둘째, 장애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선한 도구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또는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

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요 9:2-3).

예수님 당시에도 ‘장애는 죄’라는 부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편견이 있었다. 제자들도 장애를 죄의 결과로 보는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은 장애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장애를 통해 하나님의 일, 구원과 회복을 이루는 선한 도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병든 자와 연약한 자를 치유하심으로 자신이 메시 아이심을 나타내는 증거이고, 선포다. 많은 부모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죄책감과 절망에서 벗어나 한줄기 소망의 빛을 보았다고 고백한다. 믿지 않는 부모들이 사랑부에 장애인 자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느낀다.

셋째, 장애인은 세상의 지혜와 강한 것들에게 교훈과 책망을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라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1:27-29).

지혜와 힘 있는 자들이 성공하고,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세상의 이치이며 원리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나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또는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를 기준 삼아 판단한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 사람의 지혜와 강함, 계산은 한 낮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고, 이슬과 같다. 오히려 미련하고 약해 보이는 자들을 택하셔서 교만한 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내면의 성찰과 겸손함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한다. 온누리교회의 보석 같은 존재인 발달장애인 청년들로 구성된 ‘사랑챔버’와 ‘온사랑합창단’의 연주를 볼 때마다 세상의 높고 세련된 전문가의 기교 보다 하늘의 낮고 순수한 연주가 더 큰 감동과 은혜가 되고, 우리의 오염된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 시켜주는 것도 그 때문이다.

넷째, 장애인은 하나님 나라의 찬양자이고, 건강한 교회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눅 14:21).

예수님은 천국의 시민들을 묘사하면서 연약한 장애인들을 많이 언급하셨다. 천국 잔치에 많은 사람이 여러 이유로 초청을 거부하자 주인은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을 급히 오게 해서 잔치를 벌인다. 이는 장애인들의 마음이 겸손해서 천국에 들어오기에 적합하기 때문이고, 그들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세상에서는 장애인을 돌봐주거나 배려해야 할 긍휼의 대상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천국에서는 장애가 없는 찬양하는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럽고 온전한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연약한 장애인을 섬기고, 품는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는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있다. 연약한 장애인들을 통해서 교회공동체에 사랑, 섬김, 긍휼 등 선하고 아름다운 선순환이 계속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계명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온누리교회 장애인 예배》

구분	공동체	시간 및 장소
서빙고	누리사랑부 (성인)	주일 11시 콘서트홀
	꿈사랑부	주일 9시 신관 202호
	사랑부	주일 9시 콘서트홀
	예수사랑부	주일 11시 30분 한동홀
양재	사랑부	주일 9시 비전홀B
	예수사랑부	주일 11시 30분 비전홀B
강동	사랑부	주일 11시 30분 사랑홀
부천	사랑부	주일 11시 30분 꿈아이홀
인천	사랑부	주일 9시, 11시 30분 사랑홀

맛있는 말씀 해설

“...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마 6:12)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 같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는 것은 결코 우리의 순종 때문이 아니다. 예수님의 희생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를 받은 성도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다.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를 주인에게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등장한다. 그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고도 자신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감옥에 가두고 빚을 끝까지 받아내려고 한다. 주인은 이 일을 듣고 노해서 1만 달란트 탕감한 것을 취소한다. 그리고 백 데나리온 빚진 종에게 했던 그대로 그 종을 감옥에 가두고 1만 달란트를 갚을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어리석음을 비웃지만, 사실은 우리가 바로 그 종과 같은 사람인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기가 어렵다. 아니 불가능하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보다 그에게 복수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이다.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하는 복수를 하나님이 대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받았다면 당연히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머리로는 나에게 죄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 함을 알면서도 마음이 안된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롬 7:18)”라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주기도문 외에도 용서에 대해 같은 말씀을 하셨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발견하고 말씀드릴 때 하신 말씀이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막 11:25).

이 말씀도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께 값없이 용서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해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믿음’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셨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가 마르는 능력보다 더 큰 기적이 믿음을 통해 일어날 수 있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막 11:23).

예수님은 산이 뿔뿔히 바다로 던져지는 믿음을 말씀하신다. 이것을 누가 정말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스스로 결심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됨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산을 옮길 믿음과 마찬가지로 용서도 그렇다. 용서도 우리의 결심이나 논리로 되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연약하고 강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우리가 그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믿음도 용서도 모두 내 안의 예수님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부어주신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용서를 강요하기 위해 주신 게 아니다. 주기도문은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가 아닌 아버지의 의지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은일 장로
(성동광진공동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전무후무한 복의 근원, ‘하나님’

4월 22~28일
〈열왕기상〉 8:41~11:13



목상포인트 1: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솔로몬은 봉헌기사에서 일곱 가지 청원을 드린다. 개인 혹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택하신 백성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 주실 근거가 무엇인지 묵상하자.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며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또한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죄의 결과로 포로가 되더라도 성전을 향해 회개하면 들으시고 용서하시기를 간구한다. 모든 기도를 마치고 솔로몬이 회중을 축복하고, 온전한 헌신과 계명 준수를 명한다. 14일 동안 성대한 성전 봉헌식 이후 백성들이 왕을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한다.

목상포인트 2: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오래도록 누리는 비결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면서 순종에 대

한 당부와 불순종에 대해 경고하신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와 명성을 누렸는데, 이 모든 것의 출처는 ‘하나님’ 이시다. 하나님의 지혜와 복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묵상하자.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분 명령에 순종하면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지만, 불순종하면 땅에서 끊어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20년 만에 마치고, 재료를 제공한 히람에게 갈릴리 성읍 스무 곳을 준다. 히람은 그 성읍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음에도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 보낸다. 솔로몬은 많은 건축 사업을 위해 역군을 일으키고, 배들을 만들어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온다. 스바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업적에 크게 감동해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솔로몬에게 많은 예물을 준다. 수많은 사람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오고, 솔로몬은 재물을 축적하며 전무후무한 부와 명성을 누린다.

목상포인트 3: 지혜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다. 솔로몬은 지혜와 부와 명성으로 인해 교만해졌고,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지고 말았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의 결말과 그 후대가 어떠할지 묵상하자.

▶하나님은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그러나 솔로몬은 ‘결혼동맹’으로 나라를 강하게 하려고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결국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고, 솔로몬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도 함께 섬기게 되었다. 솔로몬의 마음은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에도 솔로몬이 듣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아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고,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 한 지파만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리라고 선언하신다.

-적용을 위한 가이드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 주의 소유, 주의 기업(유업)’으로 언급하며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응답을 신뢰하며, 기도하자. ▶14일 동안 진행된 성전 봉헌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고, 통치자와 백성이 서로 축복하고 기뻐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가정과 교회, 직장과 나라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자. ▶견고하고 영원한 왕조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조건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경고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없는지 돌아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에 힘쓰자. ▶솔로몬은 부유하고 화려한 삶 뒤에 가려진 영적 빈곤을 감지하지 못했다. 내 삶에서 높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영적으로 퇴보한 면이 없는지 돌아보자. 하나님과 멀어져 내 마음대로 행하는 일이 있다면 전심으로 회개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S형제를 위해서!

S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S형제는 모로코 출신의 아랍인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현재 그는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조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밤늦게 끝나서인지 최근 한 달 동안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S형제가 다시 교회에 나오도록 기도해주십시오. 그가 복음을 듣고 반응하도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S형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만, 아직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경험이 없습니다. S형제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또한 S형제와 아랍어예배공동체의 교제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해주십시오. S형제와 함께 매일 말씀을 읽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S형제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신앙생활 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S형제가 다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기를, 예수님만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기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기도해주십시오. S형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를 기도해주십시오.

/ 권다솜 자매(안산M센터)

*기도제목 보내는 곳: daa2@onnuri.org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희망콘서트 ‘Wonderful Life’

4월 26일 오전 11시 30분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희망콘서트 ‘Wonderful Life’가 4월 26일(금) 오전 11시 30분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B1)에서 열린다. 희망콘서트 ‘Wonderful Life’는 발달장애인 청년들과 그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응원하며, 희망을 선물하는 자리다.

식전 콘서트, 점심식사, 콘서트, 메시지, 블레싱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가수 이무송 집사가 사회를 보고, 가스펠보컬밴드 CRUX, 하모니카 최상미, 뮤지컬배우 정선아, 온사랑합창단이 게스트로 출

연한다. 이재훈 위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희망콘서트 ‘Wonderful Life’는 온누리교회 전도사역본부와 장애인사역본부, 온누리복지재단, 복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용산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주관한다.

온누리교회 사랑부, 용산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복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 소속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 스태프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대학·청년부 ‘사회선교 공모전’

5월 4일까지 구글폼에서 접수

대학·청년부에서 ‘사회선교 공모전’을 개최한다. ‘다가올 미래에 온누리교회가 사회선교를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 ‘사회선교본부에서 하는 사역을 대학·청년부와 함께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그 주제다. 5월 4일(토)까지 QR코드(구글폼)로 접수하고, 이메일(sky91kr@onnuri.org)로 프리젠테이션용 PPT와 아이디어 공모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누리교회 소속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당선작 발표는 5월 11일(1차)과 25일(최종)에 한다. 1등 300만 원, 2등 100만 원, 3등 50만 원, 참가상을 시상한다. 5월 25일(토) 사회선교포럼에서 최종 선정과 시상할 예정이다.

문의: 02-3215-3767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NGO 더멋진세상, 중남미 사업 확장

과테말라 지부 설치, 온두라스 보건소 건축

NGO 더멋진세상이 본격적으로 중남미 사업을 확장한다. 지난해 도미니카 두케사 병원 건축에 이어 올해는 과테말라에 NGO 더멋진세상 지부를 개설했고, 온두라스 사바나 지역에 보건소를 건축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1~9일 NGO 더멋진세상 대표 김광동 장로가 과테말라와 온두라스를 방문했다.

지난 4월 3일에 있었던 과테말라 지부 개소식에 주과테말라대한민국대사관 천준호 대사와 홍다혜 영사, 현지

정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과테말라 지부 개설로 과테말라에서 더욱 활발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활화산 지대에 위치한 오수나마을에서 교육사업 할 예정이다.

4월 5일에는 온두라스 사바나 마



사진은 지난 4월 5일 온두라스 사바나 마을 보건소 개소식.

을 보건소 개소식이 있었다. 올해부터 새로 건축한 보건소에서 소아과, 내과,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사바나마을 및 주변 3개 마을 주민 2천여 명이 의료서비스를 받는다.

문의: 02-2271-2248

/ 홍하영 기자

내적치유학교 참가자 모집

내적치유학교가 오는 5월 17일(금) 오전 11시부터 19일(일) 오후 2시까지 양지 Acts 29 비전빌리지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5월 11일까지 아이스쿨(i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8만 원.

내적치유학교에서는 민경수 목사, 정희성 목사, 오원웅 목사, 오은규 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문의: 010-6330-7634

창조과학탐사여행 참가자 모집

창조과학탐사여행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8일(토)부터 19일(일)까지 1박 2일 동안 강원도 태백과 삼척, 동해 단구 해변 등지를 돌아보며 창조신앙을 공부한다. 참가신청은 5월 17일까지 아이스쿨(i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창조과학탐사여행은 창세기 노아 홍수의 흔적을 찾아 동일과정설을 검증하고, 성경적 대격변의 현장을 탐사하며, <창세기>의 사실성을 현장에서 공부하는 프로그램이다.

문의: 010-7636-6305

서빙고 어린이 일대일

동반자/양육자	동반자/양육자
강예현	강태성
고수현	김도희
고시안	고민성
권영길	지정혜
김민성	사인석
김민주	정지영
김은유	전주옥
김의빈	박현정
김하서	김해림
김현규	김성민
박재희	박원중
박지우	임진영

이슬람선교학교 ‘와이무슬림’ 13기 개강

4월 27일부터 6월 8일까지 매주 토 오후 5시

이슬람선교학교 ‘와이무슬림 13기’가 개강한다. 4월 27일부터 6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수도권 거주자는 대면(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 비수도권 거주자는 온라인(Zoom)으로 과정이 진행된다. ‘성경적 관점에서 본 이슬람’, ‘이슬람의 예수 이해’, ‘한국의 이슬람’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등록비는 대면 5만 원, 온라인 2만 원이다.

와이무슬림은 열방의 무슬림들을 향한 이해와 국내 이주민 250만 시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이 시대의 선교적 부르심에 도전을 받는 과정이다.

문의: 010-5557-8924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을 모집한다. 온누리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타고 학생도 가능하다.

온누리세라핌합창단은 매주 토요

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첫째 주와 셋째 주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성가대실(지하 1층)에서 연습한다. 지휘는 최영은 성가사가 한다.

문의: 010-8285-6435

두란노서점 할인 이벤트!

두란노서점 서빙고점, 양재점, 송도점에서 5월 4일과 5일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에 할인 이벤트를 한다. 이날 성도들이 구매하는 제품의 가격 10%를 할인한다(전 품목 적용). 두란노서점은 서빙고점 서빙고온

누리교회 지하 1층, 양재점 양재온누리교회 1층, 송도점 인천온누리교회 1층에 있다.

문의: 02-796-2310(서빙고)

02-573-4704(양재)

032-811-3471(송도)

양재 만남의 잔치

일시: 4월 21일 오후 3시 30분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드림홀

강남A 배찬희 최진욱	허상영 강남C 김서영 김수연 김은희	박원석 송혜옥 윤대근 윤여금 이선영 이용산 임승연 하정희	김수진 이명희 황지은	도곡 박준은 주정하 최영욱	서초A 김택은	송파A 양길성	양재B 박선진
강남B 김갑수 김현주 사랑이 성백훈 이소희 최현희	강남E 김리자 김진기 문지현	과천의왕 마주남 박한제 정혜원 조윤근 최진표	분당A 권용규 김기전 문소정 박정윤 이효선	서초B 강규봉 박경호 장태은 황윤성	서초C 안병윤	송파B 이성숙 현정아	푸른누리 신현진 이원희
경기A 김기영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효고 기·도·제·목

- 4월 21일(주일) · 위로의 하나님의 역사가 효고 땅에 흘러넘쳐 그 땅의 아픔을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 4월 22일(월) · 말씀 선포하실 이재훈 위임목사님께 영적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육체의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어 사역을 충만하게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소서.
- 4월 23일(화) · 효고 땅의 성도들이 러브소나타를 담대하게 홍보해서 집회 장소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넘치게 하소서.
- 4월 24일(수) · 러브소나타 ‘효고’ 참가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효고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영적 준비를 잘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 4월 25일(목) · CGN 스태프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방송 장비의 출발과 세관 통과, 설치의 모든 과정이 안전하고 무사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 4월 26일(금) · 효고 땅의 청소년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꿈과 소망으로 살아갈 이유를 깨닫고, 그 땅을 바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소서.
- 4월 27일(토) · 효고 땅의 교회들이 깨어나고, 성령 임재를 체험하며, 말씀으로 충만하여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Love My Life(사별자모임) 참가자 간증



내가 만난 '구원의 하나님'

/ 김제영 성도(Love My Life)

내가 Love My Life(이하 러마프)에 온 지 15년 되었다. 친구의 권유로 왔는데, 처음에는 친구만 의지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뤄진다고 했지만 믿지 않았다. 그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했다. 당시 나는 3녀 1남을 데리고 살아야 했다. 그동안 역세게 일해보지 않아서 하는 일마다 잘리기 일쑤였다. 그렇지만 눈물을 머금고 일을 배우며 2~3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모든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소심했지만, 성실함이 있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발등의 불을 꺼주시는 은혜가 있었다.

하지만 험한 산을 넘는 일이 많이 힘들었다. 끝이 보이지 않던 터널을 10년 지나니까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이들도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났다. 첫째는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 둘째도 한때 나와 갈등이 있었지만, 공동체와 주위 분들의 기도로 기적처럼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다. 이 모든 기적 같은 삶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했다. 날마다 QT하며 주시는 말씀을 교훈 삼아 어려운 사회생활을 이겨냈다. 이제는 QT가 내 삶에 큰 힘을 주고 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가

뭔지도 몰랐던 내가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 아래 있었음을 고백한다. 공동체 식구들의 기도와 러마프 식구들의 기도와 위로가 큰 힘이 되었다.

어느 날 다리를 절뚝거렸고, 온몸이 아팠다. 병원에 갔더니 암이 전신에 퍼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막내까지 대학교에 잘 다니게 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 치료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암 세포 3/2가 사라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지금은 암이 거의 사라졌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생명을 살리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해답을 알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나는 지금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힘을 신뢰한다. 진리와 공의, 사랑의 힘과 원수를 용서하는 믿음으로 나아가 모든 묶인 관계를 풀고 있다. 선으로 바르게 실천하고, 묶인 관계를 풀어가시며, 세우시는 그 힘을 믿는다. 삶을 풍성하게 살도록, 지혜로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자랑한다.

광명공동체 맞춤형도집회 후기



/ 박예순 집사(광명공동체)

'New Connection' (새롭게 연결)

광명공동체가 지난달 아주 특별한 개강에 배겸 자녀를 위한 맞춤형도집회 'New Connection'을 개최했다. 공동체 담당 여성민 목사님이 공동체 개강예배를 겸해서 청년이 된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리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하셨다. 목사님이 리더십수련회에서 우리가 왜 청년들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지, 자녀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하는 부모의 책임에 관해 말씀하셨다. 우리는 합심해서 방법을 모색했다. 우선 여성민 목사님이 신실한 청년 몇 명을 만나고, 그들을 집회 주최자로 세우셨다. 그들이 열심을 내어 멋진 행사를 준비했다. 집회 이름도 청년들이 'New Connection'이라 짓고, 두 달 동안 연습에 몰두하며 집회의 틀을 잡아갔다. 그 사이 부모들은 자녀들과 청년들을 초대하느라 나름의 공을 들였다.

우리 아이만 해도 나름의 믿음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고 영적 교제하는 일을 부담스러워했다. 나는 딸에게 "너의 어린 시절을 기도로 함께해 주신 어른들이 어느덧 성인이 된 너를 궁금해하고 있고, 너를 축복해 주려는 것이니 좋은 마음으로 참여해주면 좋겠다"고 권면했다. 기특하

게도 딸이 초대에 응해주었다.

행사 당일 서른 명 넘는 자녀들이 부모의 인도를 받아 참석했다. 자녀를 위한 맞춤형도집회는 우리의 노력과 예상을 뛰어넘는 열기와 감동으로 채워졌다. 어느새 성인이 된 자녀들을 보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일었다. 자녀들이 다소 긴장하고 어색해했지만, 발그레한 미소로 반응해줘서 기뻐다.

기도로 준비했던 맞춤형도집회 순서들이 하나님 은혜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가슴이 따듯해지고 울컥해지는 순간이었다. 행사 끝에 부모와 자녀가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손을 잡으라는 제안에 쑥스러워 손을 뿌리치는 딸이 많지가 않았다.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모의 품과 질서를 벗어나 어느덧 멀어졌던 자녀들이 부모의 품으로 돌아와 마음껏 안기는 순간을 내심 기다리고 있던 것 아닐까? '내 자녀가 나에게 그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안기면서 새롭게 연결되는 순간을 계획했구나'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의 마음과 행사 주제의 뜻이 온전히 이해되었다. 행사를 마치고 자녀와 함께 꽃과 커피를 손에 쥐고 돌아오는 밤길이 참 따듯하고, 행복했다.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 참가자 간증



/ 이진 집사(부천온누리교회)

이탈리아에서 외친 '할렐루야'

서빙고, 부천, 인천온누리교회에서 모인 40명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상실된 곳에 복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탈리아 땅을 밟았다.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로마에서부터 매일 새벽기도와 찬양, 류모세 목사님의 종교개혁사 강의가 이어졌다.

'바울 참수터'로 알고 있는 세분수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과 참수형장 등을 보면서 누군가의 눈물 맺힌 흘쩍임이 고요함을 깨울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둘러서서 묵상과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로마제국의 박해를 피해 숨어 지냈던 지하 6~7층으로 이루어진 무덤 '카타콤베'로 향했다. 지하를 돌아보는데 숨 막히는 어둠을 느끼며 그 시절을 상상로나마 그리다 소스라치는 나를 발견했다. 문밖으로 나오자마자 파란 하늘 아래 심긴 사이프러스나무가 나를 얼마나 안도하게 하는지 믿음의 선지자들 앞에서 부끄러웠다.

이탈리아 남부에서 가장 큰 도시 시칠리아 팔레르모를 시작으로 몬테알레, 아그리젠토, 시라쿠사, 레기온, 나폴리, 밀라노 등 유적지와 박물관, 미술관과 성당을 방문했다. 종교

적, 정치적으로 경건의 모양, 진리를 알고 믿고자 하는 이들의 처절한 몸부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유적을 지켜 반성과 발전을 이어나가기 위한 이탈리아인들의 굳은 결의가 느껴졌다. 예술적 영혼을 몸 바친 예술인들의 삶을 보고, 듣고, 느끼는 시간이기도 했다. 중세에서 멈춘 듯한 도시 시라쿠사에서 시작해서 이탈리아 대표 유적지 광장이 있는 곳이면 항상 SUM과 복음 전도를 했다. 그때마다 우리가 먼저 감동했고, 우리를 호기심에 바라보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

우리는 발목 골절로 김스를 하고, 갈비뼈에 금이 가서 압박붕대로 동이고, 심한 디스크 통증과 무릎 관절염 등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지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일정 내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돕는 배필들과 함께 이탈리아 어디에서든 기쁨이 넘치는 '할렐루야'를 외쳤다. 이탈리아 최고중심지에서 몸으로, 목소리로, 복음 전도지와 선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울려 퍼지게 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을 바라보던 이들과 내 안에 그 기억과 감동이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와이무슬림?' 수료 간증



/ 김영삼 안수집사(강남B공동체)

크리스천이 지금 해야 할 일!

지난해 이스라엘 아웃리치를 시작으로 'Why mission?'과 '와이무슬림?' 과정을 수료했다. 은혜로운 중동 선교를 체험하는 과정이었다. 이스라엘 아웃리치에서 요르단 광야, 서안지구, 예루살렘, 가자지구 등지를 방문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 선교하는 온누리교회 아브라함 선교사님과 유대인 선교사님들의 귀한 간증과 선교 상황이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었다. 매년 동남아 아웃리치를 다녀왔는데, 이스라엘 아웃리치와 차원이 달랐다. 중동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아웃리치를 다녀와서 'Why mission?' 수료, 화성M센터 방문, 이슬람사원 방문, 한국 무슬림 상황 체험 등을 했다. 이슬람 선교에 대한 이론과 배경을 습득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사실 나는 막연하게 911테러, IS, 탈레반, 헤즈볼라, 하마스 등 이슬람을 테러 집단으로 정의했었다. 그런데 와이무슬림 과정과 이와 관련한 여러 SNS를 보면서 그것이 나의 편협된 생각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왜 전 세계에서 이슬람 중심의 테러와 전쟁이 계속 퍼져나가는지를 알게 되었

다. 그것에 대한 근본 대책이 무엇인지 막연하지만 느낄 수 있었다.

현재 국내 거주 이주민이 250만 명이다. 2030년에는 500만 명이 될 거라는 정부 통계가 있다. 특히 이슬람권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 시점에 크리스천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그에 따라 우리 후손들에게 어떠한 환경이 만들어지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 지난 달에 OMF와 JOY선교 대표 손창남 선배님과 선교 후원 모임을 했다. 그 자리에서 향후 선교는 해외가 아니라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 화지역 선교에 중점을 뒀다.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Why mission?'과 '와이무슬림?'과정과 맥이 같음을 깨달았다. 온누리M센터가 안산에서 남양주, 화성 등지로 왜 확장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다. 이주민들의 삶 속에서 함께 웃고, 울고 지내는 사역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한국에 있는 무슬림 전도가 얼마나 시급하고, 어려운지도 알게 되었다. 함께한 조원들과 헌신적으로 섬겨주시는 조장님, 스테프, 좋은 강의 해주신 강사님들께 감사하다.

장로칼럼

개복숭아꽃 핀 언덕에서



이동욱 장로
(부천온누리교회)

여느 날처럼 해 질 녘 강아지와 산책을 나섰다. 까치울터널 언덕 위 빨강개 개복숭아꽃이 피어 있었다. 개복숭아 이름은 왜 개복숭아일까? 과일치고는 왜 개복숭아라고 부른단다. 산속 잡나무들 사이에서 자라 보잘것없어서 그렇단다. 크기는 작고, 맛도 없는 쓴 복숭아라 ‘개도 안 먹는 복숭아’라서 개복숭아라고 부른단다. 개복숭아는 사람들에게 천대받았던 과일이었다. 진한 분홍색을 띤 아름다운 꽃에 안 어울리는 이름이다. 개복숭아의 복스러운 꽃은 벚꽃보다 예쁘니 말이다.

요즘 개복숭아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언젠가부터 개복숭아 효소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귀한 존재로 주목을 받고 있다. 개복숭아 열매는 매실 정도의 크기다. 신맛이 강해서 사람들이 즐겨 찾지 않았는데, 최근 효소 등으로 만들어서 민간 약재로 사용되고 있다. 개복숭아는 ‘산이 주는 천식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폐나 기관지에 좋은 음식이라고 한다. 비염, 변비, 진통 효과 등도 있으니 사람들이 줄지어 찾는 듯하다.

개복숭아에 대해 알아보고 있자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묵상하게 된다. 하나님이 창조한 해 아래 모든 식물은 저마다 쓸모가 있는 것들이다. 우리가 그것의 필요를 알지 못할 뿐이다. 그 소중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개꿈’, ‘개관’, ‘개떡’, ‘개실구’, ‘개독교’ 등 어떤 단어든 앞에 ‘개’라는 말을 붙이면 최악의 천한 단어로 전락하게 된다. 그 중 ‘개독교’라는 신조어가 듣기 거북하다. 기독교가

세상에서 ‘개독교’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 신앙의 빛이 바랬기 때문이다. 영적인 경건을 잃었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조의 섭리에서 어긋나면 거룩을 잃게 된다. 개독교 소리를 듣는 현실이 못내 안타깝다. 나부터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을 내쳐야 한다고 다짐한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화단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개옥잠화도 키우네요”라고 말했다. 참옥잠화와 달리 색깔도 순백이 아니고, 고상한 향기도 없는 짝퉁이라지 뭐냐. 곧바로 개옥잠화를 화단에서 캐냈다. 개옥잠화를 화단에서 뽑아 버렸듯, 지금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개독교도 당장 내쳐버리고 싶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 무엇인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본다. 빛바란 나의 신앙이 주님의 교회 앞에 천한 단어를 붙이고 있지 않은지 반성한다.

우리가 잘 알 듯 하나님은 영어로 ‘GOD’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뜻하는 GOD의 알파벳을 거꾸로 쓰면 ‘Dog’가 된다. 개를 뜻하는 단어다. 영어 문화권에서도 개를 천하게 여기나 보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은 참되지 않으며 천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지 않으며 개탄스럽다. 창조 섭리를 거스르면 우리 삶은 거룩을 잃고 개관이 된다. 우리는 창조의 섭리를 잃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 자체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야 한다.

개복숭아가 창조의 목적을 찾아 사람들에게 존귀한 존재가 되었듯이, 개독교라 불리는 교회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되찾아 존경과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부단한 노력으로 개독교라는 이름을 되찾아야 한다.

권사칼럼

원더풀 라이프는 계속된다!



장갑생 권사
(강촌공동체)

김형석 교수(전 연세대 철학과)가 ‘원더풀 라이프’ 세미나의 첫 문을 열어 주셨다. 더욱 뚜렷한 면모로 입술의 열매를 나눠주시며 인간의 존엄성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셨다. “인생은 고생이지만 사랑이 있는 고생이라면 멋있지 않은가?”라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나눠주셨다. 그 강의를 듣고 있는 늦은 밤, 기억의 창고에 걸어뒀던 나의 70대가 떠올랐다.

60대 중반부터 여러 육신의 아픔을 겪다가 70세를 바라보는 겨울에 팔이 골절됐다. 팔에 깁스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하라고 하셨다.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요?”라고 투덜거렸는데도 계속 감사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의 강권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하지?”라고 묻다가 감사편지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달에 한번 한 사람에게 감사편지를 쓰기로 했다. 그렇게 3년 가까이 편지를 보내니까 편지 보낼 사람이 생각나지 않아서 “나는 나에게 감사하는가?”라고 물었다. 나에게 편지를 쓰려고 앉았는데 가시처럼 걸려있었던 어떤 기억이 푹 튀어나왔다. 그것을 정리하고 나서야 무의식에 걸어두었던 울무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두란노서원 출판부에 사무엘 울만의 시 〈창춘〉으로 시작되는 ‘들어가는 말’을 보내 출판을 타진했다. 두란노서원에서는 저작권 문제에 걸린다며 첫걸음에 퇴자를 당했다. 나는 2001년 등단해서 한국문인협회에 등록된 시

인이다. 〈내 뼈의 뼈〉, 〈풀썩 풀썩사귀 귀로 앓아〉, 〈몇 갈래 길에서 이미마을로〉, 〈이슬은 영원하다〉 4권의 시집을 가지고 있었다. ‘아무리 좋아도 남의 시를 쓸 수 없는 마당에 내 시로 교체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수요예배에서 영화감독 김상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마약에 중독된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는 그 마음이 공감되고, 깊은 울림을 주었다. 나도 그들을 돕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 번째 스무 살이라며 특별한 오브제를 만들어 준 딸 덕분에 내 나이가 들통났다. ‘정말 80년을 살았구나’ 스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불만이 들끓고 있는 사회에 ‘감사’라는 화두를 던질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등을 떠밀 듯 책을 출판하게 하셨다. 이미 준비된 글로 말이다.

〈내가 나에게 쓰는 감사편지〉라는 제목의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고, 표지를 고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 주셨다. 그 덕분에 놀라게 예쁜 책이 출간되었다. 모든 수익금은 베텔중독센터에 보내기로 했다.

그날 밤, 김형석 교수가 뇌는 나이를 먹지 않는다면 100세 시대를 살아내시는 이야기를 조곤조곤 들려주셨다. 하나님이 60대에 나에게 시(詩)를 선물로 주셨고, 70대에는 감사를 주셨다. 이제 80대에는 무엇을 더하여 주실까? 하나님 뵙는 그날까지 원더풀 라이프는 계속될 것이다. 나의 85세를 꿈꾼다. 서점에서만 책을 샀던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온라인으로 책을 사는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가 몰랐던 시대마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을 이루시고, 새롭게 다가오는 미래의 문을 어떻게 열어 주실지 궁금하고 기대된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신앙에세이



송동주 목사
(남양주온누리교회)

2022년, 코로나19로 멈춰선 해외 아웃리치가 재개되었다. 그만큼 아웃리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고, 선교지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솟구쳤다. 어느 때보다 기도로 잘 준비한 아웃리치였다. 요르단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부푼 마음으로 아웃리치를 시작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팀원들의 나눔이 심상치 않았다. “하나님이 이번 아웃리치를 보내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곳에서 특별한 은혜를 얻지 못했습니다”, “정말 요르단에 온 게 맞았는지 고민이 됩니다” 등 청년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겉으로는 나빠 보이지 않았고, 특별히 힘든 사역도 없어서 지쳐 보이지

도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며, 아웃리치를 준비했는데 팀원들의 마음이 왜 그랬을까? 그때부터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오늘의 나눔은 어제와는 달라야 할 텐데...”, “팀원들이 꼭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 아웃리치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각자 하나님의 기적과 합당한 열매를 결국 발견했을까? 아쉽게도 그럭저럭 소소한 은혜를 가지고 한국에 돌아왔다. 아웃리치 인솔자였던 나는 스스로 책망하며 침체의 시기를 보냈다.

석 달 뒤, 우연히 양재온누리교회를 지나가다가 익숙한 얼굴을 만났다. 두란노국제선교회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잠시 귀국한 선교사님이셨다. 선교사님은 나를 보자마자 들뜬 목소리로 아웃리치팀이 다녀간 이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셨다. 선교사님이 가정방문을 약속하고 찾아가려는데 많은 가정

갑자기 약속을 취소했다고 한다. 낙담하며 포기하고 돌아가려는 찰나 우연히 한 가정에 방문하게 되었다고 한다. 복음을 전하고 나섰는데 그 가정에서 전화가 왔다고 했다. 선교사님이 다녀간 이후 꿈을 꿔는데 예수님이 빙글빙글 다가와서 그 가정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다는 것이다. 당뇨가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났다고 했다. 그의 딸도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을 느끼며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되었다고 했다. 그 일로 인해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간증하셨다.

이 기쁜 소식 말고도 수많은 기적을 말씀해 주셨다. 그 선교사님이 우리 아웃리치팀의 기도 덕분에이라고 고백하셨다. 우리의 기도로 놀라운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고 하셨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른다. 하나님께 참 감사했다. 돌아왔더니 아웃리치를 위해 기도한다고 했지만, 나와 팀원들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기도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은혜받게 해주세요

”, “팀원들이 큰 은혜와 열매를 보고 돌아와 공동체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아웃리치를 다녀오면 삶에서 축복이 넘치게 해주세요”와 같이 모두 나와 팀원들의 유익을 위한 기도였다.

사실 아웃리치의 목적은 개인적인 목표 성취가 아니라 현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선교사님께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웃리치의 우선 순위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놓쳤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아웃리치팀의 기도제목보다 크고 선하게 응답하셨다. 그것도 더 좋은 방법으로 들어주셨다.

당장 기도가 응답 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 그러나 기도는 절대 죽지 않는다. 가장 좋은 시기에 응답 되기를 기다릴 뿐이다.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면 바로 응답 되고, 아래로 떨어지면 썩어져 땅에서 열매가 나고, 기도가 증발하면 비가 되어서 내린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크고 선하게 응답하시고, 반드시 기도를 들어 주신다.

기도는 절대 죽지 않는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00 분당
3부 오후 1:00 분당 4부 오후 3: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분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분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분당 2부 오전 6:30 비전홀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2:00 두란노홀

문의: 이지은 대표(010-8741-307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홀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김희연 총무(010-3204-3815)

문화 미디어 홍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청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 온누리M미션

네팔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 / 러시아어

예배 12:00 신동아 2층 믿음홀 / 몽골어예

배 14:30 선교관 101호 / 아랍어예배 14:00

분관 B102호(매달 첫 주만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예배 11:00 선교관 ACTS29홀

인천 온누리M미션

모자이크예배 14:00 3층 소망홀

안산M센터

네팔어예배 10:00 303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지하 Onnuri Hall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베트남어예배 10:30 301호 / 아랍어예배

12:00 2층 Library /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4층 Manna Hall / 우즈베키스탄

어예배 14:00 304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3층 Startree / 중국(청장년)예배

11:00 4층 Manna Hall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2호 / 태국어예배 14:00 4층

Manna Hall / 필리핀어예배 14:00 지하

Onnuri Hall / 대학청년부 12:30 305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팡 11:00 1층 Star Tree Academy / 다문

화 예꿈 11:00 지하 Dream Kids Room

김포M센터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몽골어예배

17:00 706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703호 / 다문화 파워

웨이브 토요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

팡 11:00 705호

군산M센터

ANEWS예배 11:00 101호 / 다문화 차세대

예배 11:00 102호

남양주M센터

네팔어예배 토요일 20:00 304호 / ANEWS

예배 11:00 301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304호 / 힌디어예배 토요일 20:00 301호 /

다문화 차세대 예배 13:00 306호

서산M센터

ANEWS예배 11:30 비전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11:00 2층 분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파워웨이브 11:00 4층 열

방홀 / 다문화 꿈팡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화성M센터

네팔어예배 11:00 202호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1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홀, 양재 온유희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틀 운행

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

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CMN 라파티م 외국인 진료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넷째 주일 오후 4시-6시

분야: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간호사

장소: 서빙고 선교관 B1 라파진료실

문의: 박귀홍 팀장(010-9990-2875)

67기 온누리 내척지육학교

일시: 5월 17일~19일

장소: Acts29 비전빌리지

회비: 18만 원(교역자 20%, 부부, 가족 20%

할인)

신청: 5월 11일까지

문의: 010-6330-7634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업무: 마케팅팀 마케팅 편집 디자이너

형태: 정규직 (수습 및 사용기간 3개월),

주5일 근무(주 35시간)

지역: 서울 서빙고동 (본사)

접수: 4월 28일 까지

서류: http://www.duranno.com/recruit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쁨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쁨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

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어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희(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어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온유희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비전홀B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20(발달

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희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랜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

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50-9:00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비전홀B

문의: 010-6422-8376

CMN 토브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

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영 팀장(010-9439-1180)

CMN 드림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넷째주일 오후 2시~6시

장소: 안산 고려인 동포교회

문의: 이도희 팀장(010-5663-1921)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

신앙 교육, 가정이 답입니다

전 연령 두란노 가족 QT

큐티로 가정예배

크리스찬



청·장년
생명의 삶
(개역개정/우리말)



청소년
sena
(새벽나라)



유·초등부
예수님이 좋아요
(고학년/저학년)



유아·유치부
예수님이랑 나랑

5월, 두란노 '큐티로 가정예배'와 함께해요. 말씀의 기쁨으로 가득해집니다.

가족이 날마다
개인 큐티를 하고
한 주 한 번 같은 본문으로
가정예배 드려요.

두란노 모든 큐티지에
연령별 눈높이에 맞춘
가정예배 코너가
실려 있어요.

제공되는
지침서를 따라
쉽고 간단하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자세히 알아보기



체험단
EVENT

**5월 가족 큐티책과
가정예배 가이드북을 드려요!**



20가정
추첨

응모 기간 ~4.22(월)
응모 방법 큐티로 가정예배 신청서 작성
활동 내용 5월 한 달 동안 체험단 미션 4회 진행
* 미션 완료 리워드 있습니다.



체험단
신청하기

두란노